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노사협상 결렬에 따라 2일 동안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7월9일 오후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제16차 본교섭(대표교섭 7차)을 벌였지만 임금인상 등을 둘러싼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을 포함한 수정안 제시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고파업 등 투쟁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면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을 거부하며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간사 간 협의는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애초 예고한 대로 7월10일 낮 12시30분부터 조별 2시간씩 경고파업에 들어가 7월11일 오후 4시 30분까지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의 의도를 파악한 만큼 더는 대화에 의미를 두지 않고 쟁대위 투쟁지침에 따라 경고파업을 진행한다”며 “7월11일 조합원 결의대회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강도 높은 투쟁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등)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0>